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불멸의 업적

장 응 식

위대한 김일성동지는 조국통일을 민족 지상의 과제로 내세우시고 생애의 마지막 시기까지 전민족의 대단합으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절세의 애국자, 민족의 어버이이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3대헌장을 마련하시여 북과 남, 해외의 전체 조선민족이 조국통일의 강력한 주체를 이루고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닦으시였다.》

민족대단결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통일위업수행의 전행정에서 좌우명으로 삼으신 불변의 신조이다.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무엇보다먼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련해주신것이다.

민족의 합작과 단결을 떠나서는 조국통일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으며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통일국가도 창립할수 없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해방직후 외세에 의하여 우리 나라에 민족분렬의 위험이 닥쳐온 첫 시기부터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귀중한 지침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원칙과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전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비롯한 모든 통일

방안들의 근저에 놓여있는 사상은 민족대단결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61(1972)년 5월 북남고위급정치회담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찾아온 남측대표와 하신 담화에서 통일문제해결의 기초로 되는 조국통일3대원칙을 천명하시면서 사상과 리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과 남이 다같이 민족을 사랑하고 조국을 통일하려는 립장에 선다면 사상과 제도, 정견과 신앙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민족적대단결을 도모할수 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사상과 제도가 서로 다른 나라들과 민족들도 친선관계를 맺고 좋게 지내는데 하나의 피줄을 이은 같은 민족끼리 사상과 제도가 다르다고 하여 단결하고 합작하지 못할 조건이 없다, 우리는 나라의 통일을 위하여 민족주의자들과 민족자본가들을 포함한 남조선의 각계각층과 단결하고 합작하여나갈것이라고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을 통일할데 대한 원칙은 민족공동의 리익을 앞세우고 민족의 대단결로 적들의 분렬주의적책동을 짓부시며 통일운동을 주동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는 길을 명시한 강령적인 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주체62(1973)년 6월 조국통일5대방침과 주체69(1980)년 10월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천명하시면서 우리 민족성원들모두가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밑에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조국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략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명시하시였다.

1990년대를 조국통일의 년대로 되게 하

실 숭고한 뜻을 지니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는 여러 기회들에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는데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중
요한것은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이룩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민족대단결로 조국통
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하는데서 나서는 과
업과 방도들을 밝혀주시였다.

접촉과 대화를 통하여 긴장완화에로 나
가던 조선반도의 정세는 주체82(1993)년
에 들어서면서 안팎의 분렬주의세력의 악
랄한 반공화국책동으로 하여 다시금 전쟁
접경으로 치닫고있었다.

우리 민족앞에는 동족끼리 대결하여 대
국들의 희생물이 되어 열핵전쟁의 참화를 당
하는가 아니면 전민족이 단합하여 민족의 존
엄을 지키고 조국통일의 길을 열어나가는가
하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나섰다.

바로 이러한 때인 주체82(1993)년 4월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
민족대단결10대강령》을 발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령에서 자주적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전민족이 대
단결할데 대하여 천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강령에서 자주적
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범민족통일국
가의 창립을 민족대단결의 총적목표로 제
시하시고 민족애와 민족자주정신을 단결
의 리념적기초로, 공존, 공영, 공리를 도모
하고 조국통일위업에 모든것을 복종시키는
것을 단결의 기본원칙으로 규정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대단결을 위
한 구체적인 방도도 뚜렷이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민족의 운명을 우
려하는 조선사람이라면 북에 있건 남에 있
건 해외에 있건, 사회주의자이건 민족주의
자이건, 무산자이건 유산자이건, 무신론자
이건 유신론자이건 할것없이 모든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 단결하며
힘있는 사람은 힘을 내고 지식있는 사람
은 지식을 내고 돈있는 사람은 돈을 내어

모두다 나라의 통일과 통일된 조국의 통
성번영에 기여할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이처럼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민족의
대단결을 실현하기 위한 강령적지침을 마
련해주심으로써 조국통일의 역사적위업을
실현할수 있는 곧바른 길이 열려지게 되
였다.

민족의 대단결로 조국통일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업적에서 중요한것은 다
음으로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분렬책동을 짓
부시고 민족의 대단합을 이룩할수 있는 주체적
력량을 마련하신것이다.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미제와 남조선
당국자들의 책동으로 조국통일을 위한 우
리 인민의 투쟁환경이 매우 복잡하게 조
성되고있던 실정은 조국통일의 기치를 더
욱 높이 추켜들것을 요구하고있었다.

당시 남조선에서 미제의 조종과 비호밑
에 권력을 틀어쥔 군사파쇼분자들은 남조
선전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반인민
적, 반민족적폭압만행을 서슴없이 감행하
면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기
위하여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이무렵 국제적으로는 세력권쟁탈을 위한
열강들사이의 대립과 충돌이 날을 따라 격
화되었으며 이 과정에 작고 약한 나라들의
리익이 침해당하고 민족적자주권이 훼손
되는 엄중한 사태들이 빚어지고있었다.

조국통일투쟁을 더욱 힘있게 전진시켜
나가지 못한다면 민족이 영원히 둘로 갈
라지고 남조선인민들은 식민지노예의 처
지에서 벗어날수 없게 될뿐아니라 나라의
독립과 자주권도 견결히 지켜낼수 없었다.

조국통일의 주체는 우리 민족이며 통일
위업의 승리는 주체적통일력량이 튼튼히 마
련될 때 확고히 담보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적인 통일전선을 형성하는데 커다
란 의의를 부여하시고 북과 남, 해외의 통

일력량을 묶어세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이끄시었다.

여기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1980년대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를 실현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것은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지었다.

이 시기 남조선당국자들의 반통일적책동에 의하여 북과 남, 해외의 3자련대가 동시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는것을 깊이 통찰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과 해외의 련대부터 먼저 실현하시여 민족대통일전선형성을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과 해외동포들 사이의 련대를 실현하는데서 대화와 협상이 가지는 의의를 깊이 헤아리시고 미국에 있는 사람, 일본에 있는 사람, 서부도이칠란드에 있는 사람, 프랑스에 있는 사람, 캐나다에 있는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해외동포들이 민족대단결의 기치밑에 민족대통일전선에 뭉치도록 하기 위하여 북과 해외동포들사이에 대화와 협상을 실현해 나가도록 조치를 취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취하신 조치에 따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비롯한 해당한 기관, 단체들은 북과 해외의 련대를 실현하기 위하여 해외민주인사들과 종교단체들에 편지를 보내어 다각적인 접촉과 대화, 협상을 진행할것을 제기하고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렸다.

이러한 가운데 주체70(1981)년 6월 서부도이칠란드에 있는 조국통일해외그리스도신자회 회장일행이 평양을 찾아왔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과 조국통일해외그리스도신자회 성원들사이에 있는 접촉에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을 창립하기 위한 공동의 협의기구를 조속히 마련하기 위하여 해내외동포들사이의 대화를 실현할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

이 합의에 따라 조국통일에 관한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신자간의 대화를 마련할

데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이에 기초하여 대화를 위한 준비사업이 활발히 전개되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신자간의 회의가 열리게 된다는것을 알게 된 분렬주의자들은 회의를 파탄시켜보려고 온갖 음흉한 책동을 다하였다.

분렬주의세력들의 방해책동속에서도 조국통일해외그리스도신자회 성원들을 비롯한 유럽지역대표들과 아메리카지역대표들이 오스트리아의 수도 윈에서 주체70(1981)년 11월 3일부터 6일까지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신자간의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 회의는 나라가 분렬되어 36년만에 처음으로 있는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신자들사이의 통일대화로서 서로의 화해와 련합을 도모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촉진하는데서 중요한 계기로 되었다.

주체71(1982)년 12월에는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에서 제2차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신자간의 회합이 진행되었다.

조국통일을 위한 북과 해외동포, 그리스도신자간의 제2차회의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길을 따라 민족자체의 힘으로 련방국가를 창설하려는 온 민족의 확고한 의지를 뚜렷이 보여준 단결의 회합이었으며 북과 해외동포사이의 련대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한 뜻깊은 회합이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북과 해외동포들 사이의 폭넓은 대화를 정상화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구를 마련하는 조치도 취해주시었다. 이 조치에 따라 주체73(1984)년 12월에 오스트리아의 수도 윈에서 북과 해외동포들간의 범동포대화가 열리고 비상설협의체로서 조국통일을 위한 민족련합이 결성되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과 의도에 따라 1980년대에 북과 해외의 련대가 실현됨으로써 민족대통일전선실현의 전망이 열리

기 시작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애국, 애족, 애민의 일념이 깃든 민족대단결리념에서 깊은 감명을 받은 남조선의 민족민주운동의 대표적인물들은 주체77(1988)년 8월에 조선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를 발족시키고 범민족대회소집운동을 벌렸다.

뒤이어 일본과 아메리카주, 유럽지역에도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 추진본부들이 나왔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남조선과 교포사회에서 일어난 이러한 긍정적인변화를 깊이 통찰하시고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적성격을 띤 대회를 소집할것을 결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각별한 관심속에 주체78(1989)년 7월 평양에서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위한 해내외동포들의 조국통일촉진대회가 소집되었으며 대회에서는 주체79(1990)년 8월 15일 판문점에서 범민족대회를 개최할데 대하여 합의하였다.

온 민족의 커다란 기대와 관심속에 주체79(1990)년 8월 조국해방 45돐을 계기로 조종의 산 백두산정에서 조국통일을 위한 범민족대회개막과 백두-한나대행진출정식이 진행되였다.

이어 8월 15일 판문점에서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제1차 범민족대회가 성대히 열리였다.

조국통일의 희망을 안겨주는 1990년대의 첫해에 성과적으로 열린 범민족대회는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사에 특기할 력사적인 회합이였다.

범민련이 결성되고 거족적인 통일운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조국의 미래이며 애국의 선봉대인 해내외 청년학생들속에서도 3자의 단합된 힘으로 통일애국투쟁을 벌리려는 움직임이 표면화되였다.

그리하여 주체80(1991)년 8월 15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통일방안합의와 조국의 평화, 민족대단결을 위한 북과 남, 해외동포 청년학생통일회담에서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련합(범청학련)을 결성할데 대한 합의가 이룩되였다.

주체81(1992)년 8월 15일 해내외의 청년학생대표들이 참가한 가운데 판문점에서 진행된 범청학련결성식에서는 조직의 강령과 규약, 결성선언문을 채택하였으며 범청학련의 결성을 온 세상에 선포하였다.

범민련과 범청학련의 결성은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고 통일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사변이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님께서 불멸의 로고를 기울이시여 마련하신 조국통일의 주체적력량은 북과 남, 해외의 전민족적범위로 확대강화되어 더욱 굳게 결속되었으며 분렬주의세력을 압도하면서 조국통일위업을 전진시켜나갔다.

북과 남, 해외의 온 민족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따라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분렬책동을 걸음마다 짓밟개버리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필생의 념원이고 유훈인 조국통일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거족적인 애국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야 할것이다.